

이 책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LINC 3.0 Bottom Up 자율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2년 통권 제28권 제3호

2022年  
史學科 秋季學術古蹟踏查



亞洲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 목차

◎ 답사 일정

◎ 우리의 발자취

<한(韓)민족에 서린 한(恨)>

I. 동학농민혁명에 서린 한(恨), 정읍 .....	1
1) 정읍지역 개관 .....	2
2)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3
3) 황토현건적지 .....	5
II. 농민들에게 맺힌 한(恨), 김제 .....	7
1) 김제지역 개관 .....	8
2) 아리랑문학마을 .....	9
3) 금산사 .....	10
4) 벽골제 .....	12
III. 근·현대 시기 군산 사람들에게 맺힌 한(恨) .....	13
1) 군산지역 개관 .....	14
2)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15
3) 3.1운동100주년기념관 .....	17

Ⅳ. 백제인들의 한(恨)이 맺힌 도시, 익산 .....	18
1) 익산지역 개관 .....	19
2) 국립익산박물관 .....	21
3) 미륵사지 .....	23
4) 익산원불교역사박물관 .....	25
참고문헌 .....	27

## 답사를 준비하며

안녕하세요. 2022년 사학과 학생회 ‘다봄’의 학생회장 18학번 김성빈입니다. 계절은 무덥고 습한 여름에서 선선한 가을로 변하였지만 제29대 사학과 학생회 ‘사학과에 다시 찾아온 봄, 다봄’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즐겁고 알찬 학교생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이번 2022학년도 추계학술고적답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답사 중 숙박을 금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추계학술고적답사를 수원 화성에서 하루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학 가족이 2박 3일간 타지로 떠나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많은 유적지와 유물을 보고 그 안에 서린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온몸으로 느끼는 기회, 곧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답사와는 다른 것이 많았다는 점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완화를 계기로 이런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사학과 학생회는 학과장 교수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번 추계학술고적답사를 2박 3일로 기획하였습니다.

본 답사의 주제를 ‘한(韓)과 한(恨): 같은 소리, 다른 뜻’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恨)’은 몹시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을 뜻하는 말로 ‘정(情)’과 더불어 우리 한민족(韓民族) 고유의 정서로 꼽힙니다. 지난날의 기록을 보면, 우리 선조들은 조선 후기 동학 세력을 중심으로 관(官)에 맞서 생업과 삶을 지키고 국가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고자 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본 답사는 전라북도 정읍·김제·군산·익산의 여러 유적지에서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한민족의 한(恨)을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2022년 사학과 학생회가 제시한 슬로건은 ‘다시 찾아온 봄’입니다. 지난 학기 일일 답사가 학과의 대(大)행사를 살리기 위한 꽃봉오리였다면, 본 답사는 우리의 노력과 염원이 실현된 활짝 핀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학년도 화려하게 부활한 추계학술고적답사를 시작으로 사학과의 가장 큰 행사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유지되기를, 또한 본 답사가 후대 학생회에게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답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쁜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어 답사를 준비할 적에 귀한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학 가족의 깊은 추억과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기획부터 실제 운영까지 나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다해 일하는 부학생회장 이지우, 학술국장 김주영, 기획국장 최건, 복지국장 유한결, 사무국장 손지호, 홍보국장 한지우 학우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사학과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준 사학과 학생회 일동, 역사기행반 임원진과 요록 제작에 동참해준 22학번 신입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사학과 학부생들이 개척해나갈 진로와 미래에 관해 항상 함께 고민해주시고 SW(소프트웨어)중심대학 및 인문과학연구소 사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학과장 이상국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향후 정식 교과목으로 발전할 답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LINC 산학사업팀 홍수진 선생님, 원활한 학생활동비 집행을 도와주신 인문대학 교학팀 김민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6~8일, 아주대학교 사학과와 ‘LINC 3.0 Bottom Up 자율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전라북도 추계학술고적답사. 즐겁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저를 비롯한 제29대 사학과 학생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제29대 사학과 학생회장 18학번 김성빈



## 답사를 준비하며

안녕하세요. 사학과 학우 여러분 2022년도 아주대학교 제29대 사학과 부학생회장 이지우입니다. 무더운 여름방학이 지나고 2022년의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활기찬, 학교의 분위기가 어색하게 느껴지면 9월을 뒤로하고, 10월 첫째 주에 저희는 전라북도로 답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당일치기로 다녀왔던 화성행궁, 춘계답사와 달리 어느덧 기존 답사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박 3일의 일정이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가을의 기운과 함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에는 정말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암울했던 격동기, 일제의 수탈과 착취,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답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답사의 주제를 '한(韓)과 한(恨):같은 소리, 다른 뜻'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시작으로 황토현 전지와 아리랑 문학마을을 둘러보고, 둘째 날에는 금산사와 벽골제, 3.1운동 100주년 기념관과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을 둘러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엔 익산의 미륵사지와 원불교 박물관을 들르며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답사를 위해 함께 수고해준 많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답사를 기획해준 학생회 임원진 여러분, 발표를 준비하고 진행해준 학술국, 요록 작성을 총괄해준 역사기행반, 그리고 요록을 작성해준 22학번 학우분들, 또 답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학생들을 항상 신경 써주시는 교수님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답사에 참여해주신 사학과 학우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사전 답사를 다녀오면서 학생분들이 재미있어 할 몇몇의 장소들이 보여 준비하는 기간이 참으로 설레었던 답사입니다. 답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방문하기 쉽지 않았던 유적지를 다니며 학술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만, 많은 학우들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사를 오시는 모든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가는 2박 3일의 답사인 만큼, 이번 답사가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인사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제29대 사학과 부학생회장 21학번 이지우

## I. 우리의 발자취

<div data-bbox="419 591 624 788"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384 855 643 931" data-label="Text"> <p>2022년 사학과 추계 학술 고적 답사</p> </div>	<p><b>1일차 &lt;10월 6일 목요일&gt;</b></p> <p>8시 40분 원천관 앞 집합 9시 아주대학교 출발 10:30~10:45 정안알밤휴게소 경유 12:30~13:20 점심식사 13:20~15:00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5:00~16:00 황토현건적지 16:00 제2주차장으로 집합 16:00~16:30 아리랑 문학마을로 이동 16:30~18:00 아리랑 문학마을 18:00 하얼빈 역에서 집합 18:00~18:30 숙소로 이동 18:30 숙소(모악산 유스호스텔) 도착</p>
<p><b>2일차 &lt;10월 7일 금요일&gt;</b></p> <p>07:30~08:30 기상 및 아침식사 08:30~08:40 금산사로 이동 08:40~09:40 금산사 09:40~10:30 벽골제 이동 10:30~12:30 벽골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12:30~13:30 점심식사(벽골제 명품관) 13:30~14:20 군산으로 이동 14:20~15:20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15:20~15:40 군산근대역사박물관으로 이동 15:40~17:3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7:3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집합 17:30~18:30 저녁식사(빈해원) 18:30~19:30 숙소로 이동 19:30 숙소(모악산 유스호스텔) 도착 20:10~22:00 레크레이션</p>	<p><b>3일차 &lt;10월 8일 토요일&gt;</b></p> <p>07:30~08:30 기상 및 아침식사 08:30~09:30 미륵사지로 이동 09:30~11:00 미륵사지/ 국립익산박물관 11:00~11:30 원불교역사박물관으로 이동 11:30~13:00 점심식사 및 정리 13:00~14:30 원불교역사박물관 14:30~17:10 아주대학교</p>

**한(韓)민족에 서린 한(恨)**



**동학농민혁명에 서린 한(恨), 정읍**

## 농민들의 한(恨)을 느끼길 바라며, 정읍 개관

22 김동건

우리가 첫 번째 답사지로 가게 될 정읍 지역은 전라북도의 남쪽 중앙에 있다. 과거에는 '정주'라는 지명으로 불렸었고, 오늘날에는 정읍이라는 지명으로 표기되고 있다.

정읍시 주변에는 호남평야와 노령산맥이 존재하고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농업 및 농산물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호남과 서해안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 요지이기도 하다.

정읍은 역사 명승지가 풍부한데,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시기에 독립의군부로 활동했던 항일의병인 임병찬 장군의 창의유적지<sup>1)</sup>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돈헌문집」을 저술한 임병찬 장군은



▲ 정읍지역 고지도

서울로 올라가서 독립의군부를 전국적인 조직 단위로 확대하여 대한독립의군부를 창설하였다. 이후, 일본의 고위관료들에게 국권반환요구서를 보내어 일본의 조선침략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일제통치에 대한 거부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무성리에 있는 무성서원,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였던 황토현 전적지와 그를 기념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되었던 고부농민봉기부터 우금치 전투까지의 과정을 다 담은 곳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된 황토현 전적지가 기념관 옆에 존재하여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상징성을 띠는 곳이기도 하다. 동학농민운동 관련 유적지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지만 이외에도, 특색있는 음식들도 많고 내장산국립공원이 위치하여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정읍 지역은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다. 정읍이라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재의 실태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주화약과 우금치전투로 인해 전주나 지금의 우금치인 공주지역이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반수이다. 이번 답사를 통해 정읍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키우고,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였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동학농민혁명으로 자신들이 이루고자 했던 이상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전봉준 등의 농민들의 한(恨)을 느끼면서 정읍을 바라봤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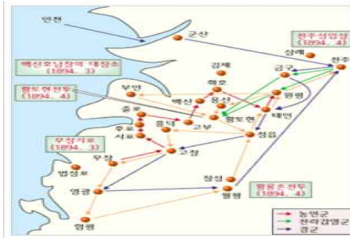
1) 창의유적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임병찬을 기리는 사당 앞에, 창의기념비가 존재하는데, 이에 이르러 창의유적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 그림, “정읍시 고지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0736>

## 조선인의 한(恨)으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의 저장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東學農民革命記念館)

22 이희재, 조인성

“오늘날 돌아볼 때 정말 순수한 애국심이 그 운동 뒤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프레드 아서 메켄지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을 보고 한 말이다. 이렇게 그가 평가한 동학농민운동의 A부터 Z까지가 전라북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전시되어있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매년 2회의 기획전시를 하는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sup>2)</sup> 본 글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곳에 대해 일부 사료와 곁들여 설명하겠다.



▲ 제1차 동학농민운동 전개과정



▲ 제2차 동학농민운동 전개과정

동학농민혁명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반봉건(反封建)이다. 1차 동학농민운동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이 도화선이 되어 발생하였다.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하며 승승장구하였으나 조정의 의해 청과 일본이라는 외세가 개입하자 조정과 화약을 맺고 해산했다. 관군과 동학군이 합의했다는 ‘폐정개혁안’은 폐단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개혁안이라는 뜻이다. ‘폐정개혁안’은 여러 안(案)이 있으나 그중 가장 대표적인 안은 집강소를 설치할 때 만든 ‘12개조’이다. 12개 중에서 반봉건적 요소는 탐관오리에 대한 엄벌과 과부의 재가, 백정 차별 금지 등이 있다. 반외세적 요소로는 일본에 부역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토지의 균등 분배를 주장하여 농민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반외세(反外勢)이다. 2차 동학농민운동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자 이에 반발하여 발생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우금치에서 크게 패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전봉준은 사형을 선고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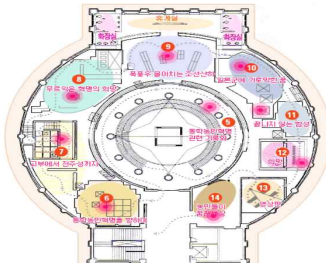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은 1차 봉기 때, 반봉건적 요소로 탐관오리에 대한 엄벌과 과부의 재가, 토지 개혁을 주장했다. 2차 봉기에는 반외세를 외쳤고, 폐정개혁안과 집강소 설치를 요구했다. 이 두 봉기는 농민들이 스스로 힘으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외쳤고, 자주적인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의 민중이 우리의 종교인 동학과 힘을 합쳐 민중혁명을 시도했다는 점과 외세, 특히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했던 점에서 한(韓)의 정서가 표현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내용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2) “동학농민운동”,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www.1894.or.kr/main\\_kor/index.php](http://www.1894.or.kr/main_kor/index.php)

3) 위의 글

상설전시관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다시 나뉜다. 각  
각의 전시실에 대해 사진과 함께 설명하면 제1전시실의  
경우 01 전시관 : 19세기 조선과 자각하는 농민들, 02 체  
험 공간, 03 전시관 : 어린이 전시실, 04 전시관 : 무명 농  
민군의 진혼,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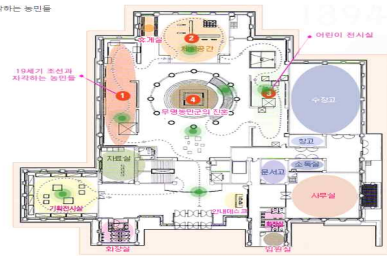


▲ 제2전시실 지도

제2전시실의 경우 05 전시  
관 :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  
록화, 06 전시관 : 동학농민  
혁명을 향하여, 07 전시관 :

고부에서 전주성까지, 08 전시관 : 무르익은 혁명의 희망, 09  
전시관 : 폭풍우 몰아치는 조선산하, 10 전시관 : 전시관 일본  
군에 가로막힌 꿈, 11 전시관 : 끝나지 않는 함성, 12 전시관  
: 희망, 13 전시관 : 영상관, 14 전시관 : 농민들이 꿈꾼 세상

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현재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전시는 <동학로742>이다.<sup>5)</sup>



▲ 제1전시실 지도

이곳에 소장된 자료의 수는 총 5,454개이며, 그중 진본이 5,396개이고 복제품이 58개로 진  
본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 이점이 흥미롭다. 자료의 종류는 군사, 생활사, 역사학, 종교, 기타  
이다.<sup>6)</sup> 분야별로 소장된 유물을 몇 가지 소개하면 군사 관련 자료는 '뇌관식 권총', '화약통'

등이 있다. 생활사 자료는 '죽모', '병거지' 등이 있다. 역사학 자  
료는 <1886년 신의호 교첩>, <1905년 무장군수 한경열의 부분  
56호> 등이 있다. 종교자료는 <예수입니다>, <만고대성선생주  
문집> 등이 있다. 기타 자료는 <만세보>, <의암 손병희 초상  
화> 등이 있다.



▲ 기획전시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의 부패한 지도층에 맞선 사람  
들의 반봉건적인 정신과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한(恨)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에 소장된 자료 대  
다수가 진본인 만큼 이곳을 관람하며 당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더 생생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

우들이 기념관을 관람하며 이번 답사에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4) 위의 글

5) 위의 글

6) 위의 글

# 그림 '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http://www.1894.or.kr/main\\_kor/index.php](http://www.1894.or.kr/main_kor/index.php)



## 한맺힌 동학농민군의 승리의 흔적 황토현 전적지(黃土峴 戰蹟地)

22 이혜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앞에는 넓은 들판이 존재하는데, 바로 황토현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다. 동학농민혁명 때 농민들은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과연 황토현 전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황토현 전투는 1894년 음력 4월 6일부터 7일 새벽에 걸쳐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의 한 과정이다. 이 전투는 1894년 1월 10일 전봉준 등을 필두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의 과정 중, 농민군이 승리한 최초의 전투라 할 수 있다.<sup>7)</su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당시, 전라 감사 김문현(金文鉉)은 무장(茂長)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들이 고부를 점령하고 백산에 집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이를 의정부에 보고하는 한편, 이서와 군교(軍校)를 풀어 전주성의 서문과 남문을 지키게 하였다. 이때 무남영병(武南營兵) 700여 명과 보부상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향병 600여 명은 원평·태인을 거쳐 백산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4월 6일, 농민군과 감영군은 태인의 용산 화호(禾湖) 나루 부근에서 최초로 접전하였다. 농민군은 교전에서 패한 채하면서 계속해서 퇴각하였고, 감영군은 그러한 농민군들을 추격하면서 황토현에 진을 쳤다. 두 진영이 대치하던 1894년 4월 7일에 농민군이 감영군 진영을 향하여 포를 쏘아대며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농민군의 기습공격에 감영군은 혼비백산하였고, 농민군은 혼란을 틈타 감영군의 주요 인물들을 죽이는 등의 전과(戰果)를 거두며 관군과의 접전에서 승리하였다.



▲정읍 황토현 전적 전경

황토현에서의 승리는 동학농민혁명이 크게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하여 동학농민혁명은 막을 내리지만, 이 운동에서 보여준 개혁 정신과 민족자주정신은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처럼 최초의 전승지로서 그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황토현 전적지와 황토현 전투는 동학농민혁명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역사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군의 피맺힌 한(恨)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토현 전투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한국사를 살펴보면,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전투는 여럿 존재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거대 담론을 중시하는 역사학에 가려져 역사 교과서나 일반적인 역사책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답사를 계기로 민중사(民衆史)에 관한 관심이 사학도들 사이에서 생겼으면 한다.

7) 조성운, 『황토현전투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73쪽.  
그림, “정읍 황토현 전적 전경”,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Search/List#modal>



**농민들에게 맺힌 한(恨), 김제**

## 김제 지역 개관

22 정준영



▲ 김제지역 고지도

김제는 지평선 축제, 벽골제, 김제 평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전라북도에 위치한 김제시의 행정 구역은 1읍, 14면, 4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쪽은 군산시와 익산시, 동쪽은 완주군, 남쪽은 정읍시와 부안군에 접하고 있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는 만입부로 우리나라 최대의 간석지가 발달해 있고, 현재에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금의 김제라는 지명을 얻기까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제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삼한시대에 김제는 '벽비리국'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백제시대 때는 병합과 흡수를 겪다가 백제 비류왕 27년에 '벽골군'으로 개칭되었다. 벽골의 뜻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첫 번째로, 벽골은 '벼의 고을'이란 뜻으로, 순수 우리말이지만 그때 당시는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한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된 지명이라는 설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한자 의미 그대로 '푸른 벼의 독'이라는 설이 있다. 벽골이라는 지명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에 지방 조직을 모두 중국식으로 바꾸면서 중국식 표기인 '김제'로 바뀌었다. 그 이후에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쳐 많은 승격과 병합이 이루어지다가, 1989년에 김제군의 일부가 김제시로 승격되었다. 그 이후로 많은 마을이 편입되어 지금의 김제(金堤)라는 지역이 탄생하게 되었다.<sup>8)</sup>

김제는 동남부에 산지가 분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이 대체로 해발고도 50m 미만의 구릉지와 충적평야로 이루어져 있다.<sup>9)</sup> 이 때문에, 벼농사에 유리하여 한반도 최대의 곡창 지대라는 지리적 입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곡창지대인 김제에서는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다. 이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인 간돌칼이 출토되었고, 벽골제 발굴조사 당시 유구석부(有溝石斧)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부터 농경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10)</sup>

김제는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는 도시이다. 김제에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금산사뿐만 아니라 넓은 바다가 보이는 망해사, 귀신사 등 많은 사찰이 있다. 이 중, 망해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작고 소박한 사찰이다. 백제 때 세워졌으며 망해사라는 이름은 '기암괴석의 벼랑 위에 망망대해를 내려다보며 서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 귀신사에는 귀신사석탑, 귀신사부도, 귀신사석수가 있다. 또한, 유교 문화재로는 교동의 김제향교와 김제향교 대성전, 금구면 금구리에 위치한 금구향교와 금구향교 대성전, 만경읍 만경리에 위치한 만경향교와 만경향교 대성전이 있다. 고가(古家)로는 조선 말기의 실학 사상가로서 호남의 삼절로 불리던 이기(李沂)의 생가와 금구면 상신리에는 장태수 선생님의 유물 등이 있다.<sup>11)</sup>

8) 김제시청, <김제시청>, [https://www.gimje.go.kr/citytour/index.gimje?menuCd=DOM\\_000001603002000000](https://www.gimje.go.kr/citytour/index.gimje?menuCd=DOM_000001603002000000)

9) 「김제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0451>

10) 「김제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0451>

# 그림, "김제시 고지도", 한국학자료포털, [https://kostma.aks.ac.kr/e-map/mapSearch\\_AN.aspx?lang=ko&mType=anciNm&sType=anSearch&sWord=DYD\\_18\\_05\\_0024](https://kostma.aks.ac.kr/e-map/mapSearch_AN.aspx?lang=ko&mType=anciNm&sType=anSearch&sWord=DYD_18_05_0024)

11) 「김제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0451>

## 농업의 튼튼한 기반, 벽골제(碧骨堤)

22 이하린

사적 제111호인 벽골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고대 저수지로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에서 월승리에 걸쳐 약 2.6km에 이르는 제방이 현존하고 있다.<sup>12)</sup> 벽골제가 위치한 전라북도의 총면적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남평야는 경관상으로 매우 평탄하고 단조로우며 그 규모 역시 상당하다. 그 면적의 크기는 동서의 폭이 약 50km, 남북의 길이가 약 80km에 이르는데, 이로 인해 김제에는 지평선이 생기게 되었다.<sup>13)</sup> 이렇게 생겨난 지평선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축제는 '김제 지평선 축제'라는 명칭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축제가 열릴 정도로 핵심적인 사적인 벽골제의 역사적 의의와 이곳의 아름다움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벽골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벽골제에 대한 연혁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흘해왕 21년의 기록으로 소급되지만, 정확한 시기는 백제 11대 비류왕 27년(330)으로 본다. 축조 당시 제방 길이만 3km가 넘고, 연인원은 32만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추정된다.

수문 및 하천 공사 등을 헤아리면 벽골제의 축조 유지 수축공사가 얼마나 거대한 국가 단위 사업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sup>14)</sup> 그렇다면 이러한 벽골제를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김제의 지형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김제평야는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끝없이 펼쳐진 평야로서 호남지역의 대규모 평야이다. 국가의 흥망을 좌지우지하는 대규모 곡창지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큰 과제 중 하나였다. 김제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해안으로 흘러 들어가 밀물이 되면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까지 밀려 올라와서 강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선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벽골제를 축조하였다. 이처럼 벽골제는 우리나라 농경사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였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벽골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저수지이다. 농업의 중심 지역답게 벽골제를 활용하여 김제의 많은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고, 이 가운데에 한민족의 많은 문화와 생활양식이 정착되었다. 벽골제를 그러다보면 한민족의 생활양식, 문화 등이 자연스레 그려진다. 이처럼 벽골제는 농업의 대표적인 산물이고 한민족 정체성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생각하며 벽골제를 둘러보길 바란다.

더불어 벽골제는 일제강점기 수탈이 컸던 지역이다. 모든 지역에서 수탈이 있었지만 큰 곡창지대이자 수도시설 근처였다는 점에서 풍요로웠던 지역이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것을 빼앗겨야 했던 아픔이 있다. 이번 답사를 통해 벽골제의 광대함과 아름다움에 더불어 그 안에 녹아내린 김제 지역 사람들의 한(恨)도 살펴보길 바란다.

12) 김제시청, <김제시청>, [https://www.gimje.go.kr/citytour/index.gimje?menuCd=DOM\\_000001603002000000](https://www.gimje.go.kr/citytour/index.gimje?menuCd=DOM_000001603002000000)

13) 김제시청, <김제시청>, [https://www.gimje.go.kr/citytour/index.gimje?menuCd=DOM\\_000001603002000000](https://www.gimje.go.kr/citytour/index.gimje?menuCd=DOM_000001603002000000)

14) 김제시청, <김제시청>, [https://www.gimje.go.kr/citytour/index.gimje?menuCd=DOM\\_000001603002000000](https://www.gimje.go.kr/citytour/index.gimje?menuCd=DOM_000001603002000000)

## 조상들의 한(恨)을 떠올렸으면 하는, 아리랑 문학마을(問學村)

22 김정우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은 구한말~광복 직전까지의 시기를 다룬 소설로 일제에 의해 핍박을 받던 당시 조선인들의 삶을 조명하여 역사적 의의가 높다고 평가된다.<sup>15)</sup> 아리랑 문학마을은 그러한 '아리랑'의 배경지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마을이다. 소설의 주연급 등장인물들은 전라북도 김제와 연관이 깊은데, 이는 '아리랑'을 재현해놓은 마을이 김제에 세워진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리랑'의 배경지는 김제가 주된 배경지일 뿐이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대하소설인 만큼 김제를 제외하더라도,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등장하며, 미주와 연해주, 만주와 같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활동하던 지역이라면 대부분 등장한다. 따라서 아리랑 문학마을에는 '아리랑'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배경 지역들이 표현되어 있다.

아리랑 문학마을은 김제 벽골제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일제 수탈관, 일제 수탈기관, 내촌 외리 마을, 이민자 가옥, 하얼빈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내도에 관람 순서를 명시해두어 처음 방문한 사람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다.

### 일제 수탈관

일제 수탈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표적인 수탈 대상이 쌀과 토지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당시의 아픔에서 벗어나 발전된 미래를 지향하는 염원을 담기 위해 현대식 구조로 조성되었다. 일제 수탈관 내부는 전시관이 구성되어 식민지의 통치 시스템과 교육, 수탈의 흐름, 저항과 항전 등 일제강점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이곳을 방문하면, 일제강점기의 전반적인 역사를 훑어볼 수 있다. 일제 수탈관의 안팎에서는 주리틀기, 곤장, 옥사 체험뿐만 아니라 전통 놀이 체험, 전통문화 체험, 인력거 체험, 근대의상 체험과 같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 내촌마을, 외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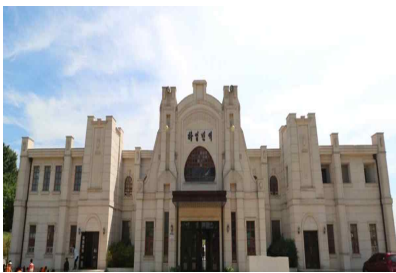
이곳에는 감골댁, 송수익, 지삼출, 손판석, 차득보 가옥 등 소설 '아리랑' 속 주인공들의 생활 터전들이 재현되어 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의 생활 터전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의미가 깊은 공간인 만큼, 아리랑 문학마을 측은 주인공들의 삶의 모습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표현하여 일제강점기 수탈의 모습을 강조했다. 소설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곳의 가옥들은 일제강점기 당대의 가옥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므로 일제강점기의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장소다.

15) 우수영, 「조정래 『아리랑』에 출현하는 공감연대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9권59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185쪽.

## 이민자 가옥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 농촌진흥운동 등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면서 우리 민족은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만주, 시베리아와 같은 이역 땅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다.<sup>16)</sup> 사람들이 주로 가게 된 곳은 대부분 척박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척박한 새로운 땅에서도 우리 민족은 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민자 가옥'이다. '이민자 가옥'은 집을 지을 재료조차 부족한 척박한 땅에서 너와집이나 갈대집을 지으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여실 없이 보여준다.

## 하얼빈역사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께서는 당시 조선 통감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원흉을 처단한 독립운동사에서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sup>17)</sup> 하얼빈역은 1899년 세워진 역으로 하얼빈의 거 이외에도 일제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기에 역사적인 장소라고도 할 수 있다. 이곳의 하얼빈역사는 1910년경의 실존 건물을 60%가량 축소하여 복원한 건물이다.

### ▲ 하얼빈역

아리랑 문학마을은 고층에 맞추어 건물들을 잘 재현해놓은 만큼, '아리랑'을 읽은 사람이라면 건물 하나하나가 읽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인상 깊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아리랑'을 읽지 않았더라도,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민족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살았는지, 일제가 세웠던 건물들은 어떠했는지, 안중근 의사와 연관이 깊은 하얼빈역은 어떠한 모습인지 등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모습을 몸소 느껴볼 수 있는 인상 깊은 장소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인 만큼, 더 공부하고 기억해두어야 하는 역사다. 당시 우리 조상들의 '한(恨)'을 떠올리면서 '아리랑 문학마을'을 관람해보았으면 한다.

16) 장석흥, 「일제강점기 한인 해외 이주의 강제성과 귀환 문제」, 『한국학논총』, 제27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159~160쪽.

17) 윤병석,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의 역사적 의의」, 『한국학연구』, 제21권21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344쪽.

## 한(韓)민족의 서린 한(恨), 금산사(金山寺)

22 정가영



▲ 金山寺事蹟,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견훤이 유폐지인 금산사  
미륵전

전라북도 김제시 모악산(母岳山)에 위치한 금산사(金山寺)는 삼국시대 백제의 제30대 무왕 당시, 600년에 창건한 사찰이다.<sup>18)</sup> 금산사는 14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명찰이며 금산사사적(金山寺事蹟)<sup>19)</sup>이라는 역사서가 편찬될 정도로 큰 규모의 절이라고 할 수 있다. 금산사의 창건과 현재까지 역사를 돌아보며 금산사의 희로애락을 소개하고자 한다. 금산사에서는 어떤 한(韓)과 한(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후백제의 견훤은 금산사를 중요하게 여겨 재건했다. 그러나 그는 큰아들인 신검에 의해 본인이 재건한 금산사에 유폐되었고,<sup>20)</sup> 신검이 금강을 죽인 후 왕위에 올랐으며 금산사에서 유폐 생활을 계속하고 있던 견훤은 금성으로 도망쳐 왕건에게 투항했다.<sup>21)</sup> 이로써 후백제는 고려에 귀속되었고, 고려라는 한(韓)민족을 새로이 건설할 수 있었다. 비록 견훤과 신검, 두 부자(父子)는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를 혈투는 미련한 관계가 되었지만, 아들에 의해 금산사에 갇혔던 견훤의 결정은 고려라는 한민족(漢民族) 형성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금산사에서의 한(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유재란 시기인 1598년, 왜군의 방화로 인해 금산사 사찰 내의 모든 건물과 산 내의 40여 개 암자는 완전히 소실되고 말았다. 또한, 1935년 3월 큰 화재로 미륵전 본존불이 전소되었다.<sup>22)</sup> 그러나 조선 인조 때 수문대사가 사찰을 재건하였고, 네 차례의 중수를 거치는 등 많은 문화재가 복원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점을 보아 금산사에서도 한(恨)을 찾아볼 수 있는 동시에, 그 한(恨)을 극복하는 과정도 함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제의 모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금산사는 이렇게 다양한 역사를 거치면서 조금씩 형태가 변화했지만, 미륵신앙의 근본도량이 되어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이르렀다. 국보로 지정된 금산사 미륵전은 겉모양이 3층으로 된 한국의 유일한 법당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답사에서 금산사를 통해 한(韓)과 한(恨)을 배움으로써 더 큰 학문의 날개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8) “모악산 금산사”, <모악산 금산사>, <https://www.geumsansa.org/>

19) “금산사사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7805>

20) 강시일, “삼국유사 기행 145(끝) 경순왕 김부”. <대구일보>. 2021-12-27, <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2112270001>

21) 「금산사미륵전본존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4170>

22) 이종근, “금산사 미륵전, 1935년 3월 9일 화재로 불탔다”, <새전북신문>, 2020-03-09, [http://www.sjbnews.com/news/data\\_file/li\\_pdf\\_454\\_0.pdf](http://www.sjbnews.com/news/data_file/li_pdf_454_0.pdf)



**군산 근·현대 시기 사람들에게 맺힌 한(恨)**

## 남부지방 근현대사의 한(恨), 군산 개관(群山 概觀)

22 이정연



▲ 조선시대의 군산 (동비여고)

군산이란 땅의 이름은 한자로 풀어쓰면 무리 군(群), 외산(山)으로 산이 무리지어 있다는 뜻의 도시이다. 군산은 고려시대에 문헌에 처음 등장한 이후, 조선시대를 지나 근현대 시기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잡았다.

군산은 1899년 개항 이후 일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계획된 군산 원도심의 기본적인 골격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천, 목

포, 부산 등지와 더불어 개항 도시의 원형을 상대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또한 조선은행,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세관, 동국사, 일본식 가옥 등을 비롯한 170여 채의 근대문화유산이 축적된 장소이기도 하다.<sup>23)</sup>

전주에서 군산을 잇는 호남평야지대는 일제의 광범위한 토지 수탈과 집중적인 미곡 수탈의 직접적인 대상이었고, 이런 가운데 군산은 쌀 수탈 기지로써 이용되었다. 1913년에 많은 일본인들이 군산에 진출할 정도로 군산에 일본인들이 많았다. 이 일본인들은 이 지역의 토지를 대부분 차지하며 지역지배를 강화하고 있었고, 쌀 수탈 전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sup>24)</sup>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있었다. 3.1 운동 당시 남부 지방에서는 5일부터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의거의 발화가 바로 군산에서 일어난 것이다. 군산의 만세운동은 기독교 학교인 영명 학교 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후 익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당시 군산은 일본인들이 평지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조선인들은 산비탈에 조그만 집으로 내몰리며 온갖 수치와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군산을 남부지역 만세운동의 시발점으로 삼았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sup>25)</sup>

이처럼 군산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근대 시설들을 통해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 이용된 도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침략자로부터 조국을 되찾고자 한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답사에서 암울한 상황 속에서 독립이라는 희망을 꿈꾸던 우리 조상의 한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3) 김영중. (2014).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군산 원도심 재생. 국토, 84-90.

24) 김민영.(2019). 일제강점기 군산의 사회와 경제, 제8회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춘계학술대회, 3-12

25) 김은주.(2019). 군산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참여. 신학과 사회, 33(3), 35-64.

# 그림 , '조선시대의 군산(동비여고)', 국립 군산대학교 박물관, [https://www.kunsan.ac.kr/museum/index.kunsan?menuCd=DOM\\_000005202004004000](https://www.kunsan.ac.kr/museum/index.kunsan?menuCd=DOM_000005202004004000)

## 호남지방 근대사의 저장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群山近代博物館)

22 원우혁

군산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엿볼 수 있는 많은 유적지가 존재한다. 근대사의 관련된 일제강점기 시대의 건축양식이 남아있는 히로쓰 가옥부터 우리의 예술품들이 불법으로 수집된 시마타니 금고가 존재하며 군산 지역만의 정서와 양식이 남아있는 문화재도 존재한다. 임피역사와 해림관은 군산 농민의 건축양식과 군산에 정착한 화교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유적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 이번 답사지에서 우리가 방문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에서의 근대화 모습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곳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경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4개의 상설 전시관과 기획 전시관이 존재한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해양물류역사관, 독립영웅관, 근대생활관, 기획전시실의 4개의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을 통해 근대화 시기의 군산을 보여주는 유물과 문서를 전시하고 있다. 기증자전시실에는 개인과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기증하시는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특히 독립영웅관에서는 군산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를 소개한다. 해외 독립 유공자들부터 국내 독립 유공자들의 명단이 적혀있고 내부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유물을 독립운동가분들의 사진과 함께 전시하고 있으며 의병으로서 항쟁했던 일기와 독립운동가분들이 사용했던 검까지 전시되어 있다. 또한 군산 농민들의 항쟁인 옥구 농민항일항쟁에 대한 내용과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분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데, 호남 최초의 3·1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군산의 과거를 보여준다. 또한, 근대생활관에서는 일제의 강압적 통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1930년대 군산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했다. 근대생활관은 도시의 역사, 서민들의 삶, 저항과 삶, 근대건축물, 탁본 체험으로 세세하게 전시되어 있다. 특히 전시관 자체가 옛날 군산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군산에서 취급했던 물품을 파는 상가인 흥풍행부터 일제강점기의 시대에 수탈을 위한 항만시설인 부잔교까지 그 당시 군산의 생활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sup>26)</sup>

26)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생활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22년 9월 15일, [https://museum.gunsan.go.kr/content/sub02/02\\_02.jsp](https://museum.gunsan.go.kr/content/sub02/02_02.jsp)  
#그림, 장인영,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역사 ‘군산근대역사박물관’」, 『Enter 뉴스』, 2020년 01월 28일, <http://www.k-enter.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52>, 2022년 9월 23일

## 구 군산세관 본관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군산항에 군산세관의 본관으로 건립된 건물로서 당시 감시계청사 및 감시망루 등 다수의 시설들이 함께 있었으나 현재는 본관과 창고만이 남아있다. 개항 초기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 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 건물의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어 1994년에 역사 유적으로 지정되었다.

구 군산세관은 서양풍의 디자인을 적용한 건축양식으로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구 군산세관 본관의 외관은 적벽돌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입구나 박공부에 부분적으로 화강석을 사용하여 입면에 변화를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대칭적인 모습이고 내부는 많은 부분이 개조되었으나, 변화가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2018년 8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었다.

##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한국과 대륙의 경제 수탈을 목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건물이다. 광복 후에는 한일은행 군산지점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군산을 배경으로 한 채만식의 소설 '탁류(濁流)'에 나오기도 하는 군산의 근대사를 상징하는 건물이다.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중앙은행 격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와 아시아 침략을 지원하였다.<sup>27)</sup> 군산 내항에 있는 구 조선은행은 일제강점기의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많이 모여 있던 위치에 존재했다. 구 조선은행은 1911년 조선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구한 국은행을 설립할 때 군산출장소로 시작했다. 그 당시 주요 업무는 군산항을 통해서 반입, 반출되는 쌀 수익금을 예치하고 농지 매입을 통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일이었다. 1953년 이후에는 한일은행 군산지점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민간에 매각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여 군산 근대건축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구 조선은행 또한 군산 근대를 상징하는 건물이다.

군산은 한국의 근대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다양한 근대사 관련 유적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지들을 관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근, 현대 시기 군산 백성들의 한(恨)을 느끼는 것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보면서 근대 역사를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군산 백성들의 한(恨)을 느껴보길 바란다.

27) "국가등록문화재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문화재청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jsessionid=jVuUdw4nV0Ep1m71Vw1qOlZsHUyiswQPIKtaZJ1cG2n9Mrx2bjs82fj4Mj1x8anQ.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ccbaCpno=441350374000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jsessionid=jVuUdw4nV0Ep1m71Vw1qOlZsHUyiswQPIKtaZJ1cG2n9Mrx2bjs82fj4Mj1x8anQ.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ccbaCpno=4413503740000)

## 한강 이남 최초의 3.1 운동 군산 3.1 운동 100주년 기념관

22 주민혁

전라북도 군산시 영명길에 위치한 군산 3.1 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이러한 만세 운동의 애국정신을 기념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0일 군산 3.1 운동 기념 사업회가 주관하여 기념관을 건립 및 개관하였다. 군산은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3월 5일에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군산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은 전국으로 만세 운동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8)</sup>



▲군산의 만세 운동 모습

군산의 3.5 만세 운동은 군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김병수가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이갑성과 접촉하여 벌인 운동이다. 김병수가 독립선언문 200장을 건네받고 군산으로 내려와 자신이 졸업한 학교에 있는 교사들에게 독립선언문을 전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군중이 많이 모이는 서래 장날인 3월 5일로 정하고 독립 만세 운동 준비했다. 그러나 사전에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게 학교를 급습당했다. 인쇄된 독립선언문과 태극기 등 독립 만세 운동에 관련된 각종 문서를 압수하고 박영세, 이두열 두 교사를 압송했다. 이를 지켜본 교사와 학생 70여 명은 이날 오후 군산경찰서 앞에서 연행한 두 교사를 석방하라는 구호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만세 시위는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일어난 만세 시위이며, 호남지역에서 발행한 최초의 시위로 기록되고 있다. 이튿날 3월 6일 예정대로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 예수병원 직원, 구암교회 신도, 일반시민 등 700여 명이 서래장터를 지나 군산경찰서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211개 지역에서 3개월간에 걸친 3.1 만세 운동은 202만 3089명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사상자 7,508명, 부상자 1,561명, 체포자 46,94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군산지방은 3.5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군산 보통학교 방화 항일운동, 옥구, 대야 장날 항일운동, 임피장날 만세운동, 군산재판소 판결 불복 시위 등 만세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그 여파는 전주, 광주, 목포, 익산 등지로 퍼졌으며 호남지방 항일저항운동의 시초가 되었고 범국민적으로 국가를 위한 독립의식을 일깨워 줬다.<sup>29)</sup>

군산에서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은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만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과 거대담론에 의해 천안지역에서의 독립 만세 운동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도 이러한 만세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파급력과 우리 민족의 피해가 심각했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답사를 계기로 군산의 3.5운동도 기억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호남지역 사람들의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조상들의 사무친 한(恨)을 느껴보길 바란다.

# 그림, 박민웅, 「한강 이남 최초 만세운동 펼친 군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년 02월 28일,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69627>, 2022년 9월 23일

28~ 29)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4612>, 2022.03.02

**백제인들에게 한(恨)이 맺힌 도시, 익산**

## 한(恨)의 마지막 발자취: 익산 지역 개관(益山地域概觀)

22 신원재



▲ 익산지역 고지도

익산은 금강을 경계로 충청남도의 끝에 있는 전라북도 서북부 지역으로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위치해 있다. 익산 지역이 오랜 세월부터 ‘익산’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익산시청홈페이지에 익산의 역사에서 알 수 있다.<sup>30)</sup>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익산 지명의 역사를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충혜왕(忠惠王) 때 익주(益州)라고 불리었고, 조선시대 태종 13년 때 ‘익산군’(益山郡)으로 이름을 고친 후, 시간이 흘러 현재의 지명에 이르렀다.

익산은 주변의 김제시, 군산시와 함께 호남의 중심지로서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지역이다.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산미 증식계획에 의해 직강 공사와 수리시설 등이 개발되어 그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sup>31)</sup> 교통에도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호남선, 군산선, 전라선 철도가 개통되어 육상 교통의 중심지였다. 광복 이후에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현대에서도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sup>32)</sup>

익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익산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 등 8개의 유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물과 유적들이 있는 도시이다. 짝개, 톱날석기, 돌도끼 등의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유물이 익산에서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때 익산 입점리에서 백제 고분이 발견되었으며 백제의 사찰인 익산 미륵사지는 무왕(武王) 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3)</sup>

미륵사 근처에는 쌍릉이라고 불리는 무덤이 있다. 백제 후기 시기의 굴식돌방무덤 구조이며 대왕묘와 소왕묘라고 부른다. 백제의 무왕과 왕비인 선화공주의 무덤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나 뚜렷한 증거는 없다.<sup>34)</sup> 익산에 위치한 왕궁리유적에서는 10,000여 점의 유리, 금제품, 도가니, 인장들이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고려시대의 사찰인 왕궁리 5층 석탑도 있다. 익산 왕궁리유적의 궁성 내부의 조영 방식은 중국 북위 낙양성의 궁성 배치 방식과 비슷하고, 정원시설과 화장실 등은 일본 평성경 유적에서도 발견되어 한, 중, 일 삼국 문화교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sup>35)</sup>

30) “익산의 유래와 역사”, <익산시청>

[https://www.iksan.go.kr/index.iksan?menuCd=DOM\\_000002005004001001&cpath](https://www.iksan.go.kr/index.iksan?menuCd=DOM_000002005004001001&cpath)

31) 원도연, 「일제강점기 익산의 근대농업과 이리농림학교의 사회사」,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20권 3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년, 105-133쪽.

32) 위 참고문헌, <익산시청>

33) “문화재 종목별 검색”,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2\\_0&VdkVgwKey=11,00110000,35](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2_0&VdkVgwKey=11,00110000,35)

34) 위 참고문헌

35) “익산시 문화관광”, <익산 시청>

[https://www.iksan.go.kr/tour/index.iksan?menuCd=DOM\\_000005905001004000](https://www.iksan.go.kr/tour/index.iksan?menuCd=DOM_000005905001004000)

# 그림, “익산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D%B5%EC%82%B0%EC%8B%9C&ridx=0&tot=5992>

익산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답사를 통해 익산에 맺힌 한민족의 한(恨)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번 답사를 통해 익산 지역에서의 한민족의 한(恨)을 느껴보길 바란다.



## 아름다움과 더불어 한을 느끼다: 국립익산박물관(國立益山博物館)

22 주민경



▲ 국립익산박물관의 전경

국립익산박물관은 1997년 미륵사지유적박물관으로 시작하여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문화유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립박물관이다. 국립 익산 박물관은 미륵사지의 남서쪽에 위치한 박물관으로써 백제 문화유산의 맛을 엿볼 수 있다.

국립익산박물관에서의 전시는 상설전시, 기획전시로 나뉜다. 상설전시는 익산백제실, 미륵사지실, 역사문화실이 있다. 익산백제실은 익산에서 출토된 후기 백제의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익산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쌍릉 등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문화유산들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백제 무왕이 수도를 왕궁평으로 옮기려고 지은 궁궐 근처에 불교의 수호신인 제석천을 모신 절이 있던 자리라고 추정되는 '제석사지 유적'의 유물들이 돋보인다.<sup>36)</sup> 이러한 제석사지 유적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유물로는 악귀상 두부와 천부상 두부가 있다. 악귀상 두부는 제석사지 폐기장에서 출토되어 소조로 된 악귀상의 머리 부분이다.<sup>37)</sup> 악귀상 두부는 실감나는 표정으로 제작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천부상 두부는 익산 제석사지 근처 폐기장에서 수습한 소조상이다.<sup>38)</sup> 지그시 감은 듯한 눈과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이 돋보인다.

미륵사지실은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문화유산들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미륵사지실에서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 중에서 백제인의 염원을 담은 사리장엄구 속 유물이 가장 눈에 띈다. 먼저 금제사리봉영기가 있다. 금제사리봉영기는 금판의 앞면과 뒷면에 칼을 이용하여 글자를 새기고 획을 따라 주사를 입혀 글자를 더욱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졌다.<sup>39)</sup> 사리봉영기에 새겨진 내용을 통해 미륵사의 창건목적과 시주자, 석탑의 건립 연대를

36) “익산 제석사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ulPageNo=1&region=1&searchCondition=%EC%A0%9C%EC%84%9D%EC%82%AC%EC%A7%80&searchCondition2=&ccbaKdcd=13&ccbaAsno=04050000&ccbaCtd=35&ccbaCpno=1333504050000&ccbaCndt=&ccbaLcto=&stCcbaAsdt=&endCcbaAsdt=&header=view&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ViewList.do&pageNo=1\\_1\\_1\\_0&p=multiSch&sortType=&sortOrd=&snl=Y&s\\_kdcdArr=00&s\\_ctcdArr=00&ccbaPcd1Arr=99&ccbaGcodeArr=00](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ulPageNo=1&region=1&searchCondition=%EC%A0%9C%EC%84%9D%EC%82%AC%EC%A7%80&searchCondition2=&ccbaKdcd=13&ccbaAsno=04050000&ccbaCtd=35&ccbaCpno=1333504050000&ccbaCndt=&ccbaLcto=&stCcbaAsdt=&endCcbaAsdt=&header=view&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ViewList.do&pageNo=1_1_1_0&p=multiSch&sortType=&sortOrd=&snl=Y&s_kdcdArr=00&s_ctcdArr=00&ccbaPcd1Arr=99&ccbaGcodeArr=00)

37) “악귀상두부”, <국립익산박물관>.

[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3&mng\\_no=244&GotoPage=2](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3&mng_no=244&GotoPage=2)

38) “천부상두부”, <국립익산박물관>.

[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3&mng\\_no=243&GotoPage=2](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3&mng_no=243&GotoPage=2)

39) “금제사리봉영기”, <국립익산박물관>.

[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4&mng\\_no=215&GotoPage=1](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4&mng_no=215&GotoPage=1)

# 그림, <국립익산박물관>, [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4&mng\\_no=215&GotoPage=1](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4&mng_no=215&GotoPage=1)

정확히 밝혀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금제사리내호와 금동제사리외호와 같은 백제인들의 세심하고 아름다운 멋이 담긴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해두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공주나 부여를 떠올린다. 그러나 익산 역시 백제사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국립익산박물관을 관람하여 익산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백제인들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동시에 잘못된 복원으로 인해 미륵사지 유적을 온전히 볼 수 없는 한(恨)을 이해하길 바란다.

## 미복원의 한을 부르짖다: 미륵사지(彌勒寺址)

22 송나운



▲미륵사지 복원 전 모습

미륵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에 자리하고 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 최대의 사찰이며, 백제의 제30대 왕인 무왕에 의해 설립되었다. 미륵사지에는 대한민국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석탑과 보물 제236호인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있다. 미륵사는 백제 제30대 무왕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최대의 사찰로, 언제 사라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17세기경에 폐사(廢寺)된 뒤로는 서탑(西塔) 및

당간지주(幢竿支柱) 등의 일부 석물만 남았으며, 사역(寺域)은 경작지와 민가로 변하여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sup>40)</sup> 이처럼 약 1400년간의 긴 역사가 있는 백제의 최대 사찰인 미륵사지의 유래와 미륵사지에 담겨 있는 민족의 한(恨) 서린 역사를 알아보려고 한다.

1910년대에, 일본 학자들은 미륵사지가 '品'자 모양 3개를 합쳐 만든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한국의 발굴조사를 통해 이전까지 알려졌던 일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일본의 잘못된 조사로 인해 백제사와 불교미술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소멸할 뻔한 것이다. 미륵사지의 수난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바로, 동탑과 서탑으로 나누어진 미륵사지석탑의 중앙 서탑이 1915년 벼락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보수공사를 명분으로 하여, 무려 18t이나 되는 콘크리트를 서탑에 부어 버렸다. 문제는 콘크리트가 백화현상과 풍화작용을 촉진한다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문화재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덕지덕지 발라놓은 콘크리트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미륵사지석탑을 그저 흉측한 물골의 돌덩어리로 둔갑시켰다.<sup>41)</sup> 그러던 1998년, 노후와 안전성 문제로 인해 미륵사지석탑에 대한 해체 수리가 결정됐다.



▲미륵사지석탑 수리 후 모습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본래의 모습인 9층으로 석탑을 복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벼락으로 무너진 6층까지만 복원하기로 했다. 무리한 복원으로 문화재를 더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과거의 심각한 파괴로 인해, 미륵사지는 무려 20년간의 세월이 흐른 현재에서야 복원이

40) 「익산 미륵사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2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6761](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6761)

41) 강민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치욕의 역사를 끝내다”, <한겨레>, 2018년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51680.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51680.html)

# 그림1,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essionId=ewz1rwfR16F60WyYB1snpzknm16YdPksYX3lcSZHzESckSpebocWwqEa23naA3Ke.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VdkVgwKey=11,0011000,35](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essionId=ewz1rwfR16F60WyYB1snpzknm16YdPksYX3lcSZHzESckSpebocWwqEa23naA3Ke.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VdkVgwKey=11,0011000,35)

# 그림2,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essionId=ewz1rwfR16F60WyYB1snpzknm16YdPksYX3lcSZHzESckSpebocWwqEa23naA3Ke.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VdkVgwKey=11,0011000,35](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essionId=ewz1rwfR16F60WyYB1snpzknm16YdPksYX3lcSZHzESckSpebocWwqEa23naA3Ke.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VdkVgwKey=11,0011000,35)

완료되었다.

복원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미륵사지는 현재까지 ‘백제인들의 반쪽짜리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다. 후대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온전한 백제의 아름다움을 찾길 바라며, 이번 답사를 통해 이러한 문화재의 한(限) 서린 역사를 깊이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 원불교로 바라본 조선인들의 한, 익산원불교역사박물관

18 김주영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 각자 믿는 종교에 따라 생활양식과 사고방식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원불교는 한국 사회에서 여타 종교에 비해 덜 알려진 것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원불교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원불교가 우리 역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을까?

### 원불교의 사상적 배경과 발전



▲박중빈 초상

원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불교의 탄생 과정과 발전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실패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일제의 침략과 국권회복을 목표로 여러 종교들이 출현했다. 그 기간 동안 출현한 것이 바로 원불교인데, 원불교는 박중빈(1891~1943)이라는 청년에 의하여 창립되었다.

소태산이라고 불리는 박중빈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표어 아래 원불교를 창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sup>42)</sup> 바람직한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많은 사람들을 모아 저축조합을 결성하고 소비절약을 주장하며 금주, 단연 그리고 공연 노동을 통하여 자금을 모으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의 공동자금을 마련하였다.<sup>43)</sup> 이렇게 얻은 자금을 바탕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하여 원불교 교단을 조직화했다.

그러나 이렇게 조직화한 원불교는 소태산의 영광경찰서 소환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후 자신의 포부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약 5년 동안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조선불교혁신론’을 저술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원불교 교리와 제도의 초안을 마련했다.

재정비를 마친 후, 소태산은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에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원불교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sup>44)</sup> 원불교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익산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동생활을 통한 농작지 경영과 황무지 개간 등을 통해 생산에 힘썼으며, 상조조합을 창설하여 근검하고 절약하는 방법을 통한 자금 저축 방식을 관습화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영광에서 처음 만들어진 원불교 조직을 불법연구회 영광지회로 신흥지회 등으로 복원하고 여러 지회들을 설립했다.

이후, 회원이 증가하면서 <월말통신>, <회보> 등을 간행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조선강점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활동을 지속해나갔다. 그러나 익산경찰서에서 불법연구회 구내에 북일면 순사주재소를 설치하면서 소태산의 불법연구회는 경찰관들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회보>에 실리는 글들은 검열 과정을 거쳐 편찬되었으며, 1940년에 <회보>는 강제 폐간의 수모를 겪게 되었다.

원불교역사박물관에 따르면, 1945년 광복 이후 원불교는 대한민국 건국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도주의를 지향하는 사상을 제시했으나, 이념대립의 심화로 인해 한국 내에서 그 입지를 잃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3대 목표인 교화, 교육, 복지사업에 역량을

42) “창립과 발전”, 원불교역사박물관, <http://wonmuseum.net/home/node/42>

43) 위의 사이트

44) 위의 사이트

집결하여 교명을 원불교로 바꾸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러한 3대 목표를 바탕으로 교역자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기관의 설립, 다양한 복지사업 실행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 원불교 사상

여러 종교들마다 응당 나름의 사상 있다. 그렇다면 원불교의 사상은 무엇일까? 원불교역사 박물관에 의하면 약 4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통종교를 지향하는 일원상 진리', '상생과 조화의 은사상', '현세적 이상세계-물질개벽과 정신개벽' 그리고 '후천개벽의 역사관'이 이에 해당한다.<sup>45)</sup>

원불교역사박물관에 따르면, '통종교를 지향하는 일원상 진리'의 사상은 일원상을 우주의 근원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이로 인해 원불교의 신앙은 진리 자체에 대한 신앙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일원의 진리는 모든 성인들이 깨달은 진리이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하나의 진리를 바탕으로 목적 또한 같다고 주장하며 통종교적인 측면으로 원불교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불교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상생과 조화의 은사상' 사상은 인간과 만물이 생존하는 데 있어 상호 은혜의 관계가 전제됨을 설명하고 있는 사상이다. 원불교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四恩의 산물이 인간이며, 인간은 이러한 사은의 도리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 사회를 이러한 보은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덕목들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덕목들에 대한 실천을 강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세적 이상세계-물질개벽과 정신개벽' 사상은 인류가 만들어낸 물질문명의 성과를 모든 인간들이 고르게 소유하는 세상을 현세에서 이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sup>46)</sup>

마지막으로, '후천개벽의 역사관'은 인간 평등의 사상을 내세우면서, 상생과 조화의 관계만이 인류 역사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sup>47)</sup>

이러한 사상을 내세운 원불교는 박종빈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루어 나갔다.

## 원불교 독립운동

일제강점기에는 개신교와 천주교와 같은 여러 종교 단체들이 일본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원불교 또한 일제강점기 시기에 박종빈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우리역사넷에 따르면, 박종빈은 원불교를 창시하여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을 전대하여 민족의 자립정신을 키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녀평등, 허례허식 폐지 등의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익산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원불교는 인간 평등사상을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우리에게 낯선 원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면서 원불교 독립운동으로 조선의 독립을 열망했던 익산 사람들의 한을 이해하며 답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45) “원불교의 사상”, 원불교역사박물관, <http://wonmuseum.net/home/node/42>

46) 위의 사이트

47) 위의 사이트

# 그림, “박종빈 초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11>

## <참고문헌>

### [논문]

1. 조성운, 『황토현전투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2. 우수영, 「조정래 『아리랑』에 출현하는 공감연대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9권59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 장석흥, 「일제강점기 한인 해외 이주의 강제성과 귀환 문제」, 『한국학논총』, 제27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159~160쪽
4. 윤병석,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의 역사적 의의」, 『한국학연구』, 제21권21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344쪽
5. 김영중,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군산 원도심 재생. 국토, 84-90
6. 김민영, 일제강점기 군산의 사회와 경제, 제8회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춘계학술대회, 3-12
7. 김은주, 군산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참여. 신학과 사회, 33(3), 35-64
8. 원도연, 「일제강점기 익산의 근대농업과 이리농림학교의 사회사」,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20권 3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05-133쪽

### [사전]

1. “정읍시 고지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0736>
2. “박중빈 초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1197>
3. 「익산 미륵사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6761](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6761)
4. “익산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
5. “정읍시 고지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0736>
6. “정읍 황토현 전적 전경”,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Search/List#modal>
7. 「김제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0451>
8. 「금산사미륵전본존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4170>
9. “금산사사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7805>

### [사이트/기사]

1. “동학농민운동”,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www.1894.or.kr/main\\_kor/index.php](http://www.1894.or.kr/main_kor/index.php)
2. 그림 ‘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http://www.1894.or.kr/main\\_kor/index.php](http://www.1894.or.kr/main_kor/index.php)

3. 김제시청, <김제시청>, [https://www.gimje.go.kr/citytour/index.gimje?menuCd=DOM\\_000001603002000000](https://www.gimje.go.kr/citytour/index.gimje?menuCd=DOM_000001603002000000)
4. 그림, "김제시 고지도", 한국학자료포털, [https://kostma.aks.ac.kr/e-map/mapSearch\\_AN.aspx?lang=ko&mType=anciNm&sType=anSearch&sWord=DYD\\_18\\_05\\_0024](https://kostma.aks.ac.kr/e-map/mapSearch_AN.aspx?lang=ko&mType=anciNm&sType=anSearch&sWord=DYD_18_05_0024)
5. "모악산 금산사", <모악산 금산사>, <https://www.geumsansa.org/>
6. 강시일. "삼국유사 기행 145(끝) 경순왕 김부". <대구일보>. 2021-12-27, <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2112270001>
7. 이종근, "금산사 미륵전, 1935년 3월 9일 화재로 불탔다", <새전북신문>, 2020-03-09, [http://www.sjbnews.com/news/data\\_file/li\\_pdf\\_454\\_0.pdf](http://www.sjbnews.com/news/data_file/li_pdf_454_0.pdf)
8. 그림, '조선시대의 군산(동비여고)', 국립 군산대학교 박물관, [https://www.kunsan.ac.kr/museum/index.kunsan?menuCd=DOM\\_000005202004004000](https://www.kunsan.ac.kr/museum/index.kunsan?menuCd=DOM_000005202004004000)
9.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생활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22년 9월 15일, [https://museum.gunsan.go.kr/content/sub02/02\\_02.jsp](https://museum.gunsan.go.kr/content/sub02/02_02.jsp)
10. 그림, 장인영,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역사 '군산근대역사박물관'」, 『Enter 뉴스』, 2020년 01월 28일, <http://www.k-enter.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52>, 2022년 9월 23일
11. "국가등록문화재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문화재청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jsessionid=jVuUdw4nV0Ep1m71Vw1qOlZsHUyiswQPIKtaZJ1cG2n9Mrx2bjs82fj4Mj1x8anQ.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ccbaCpno=441350374000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jsessionid=jVuUdw4nV0Ep1m71Vw1qOlZsHUyiswQPIKtaZJ1cG2n9Mrx2bjs82fj4Mj1x8anQ.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ccbaCpno=4413503740000)
12. 그림, 박민웅, 「한강 이남 최초 만세운동 펼친 군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년 02월 28일,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69627>, 2022년 9월 23일
13.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4612>, 2022.03.02
14. "익산의 유래와 역사", <익산시청>  
[https://www.iksan.go.kr/index.iksan?menuCd=DOM\\_000002005004001001&cpath](https://www.iksan.go.kr/index.iksan?menuCd=DOM_000002005004001001&cpath)
15. "문화재 종목별 검색",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2\\_0&VdkVgwKey=11,00110000,35](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2_0&VdkVgwKey=11,00110000,35)
16. "익산시 문화관광", <익산 시청>  
[https://www.iksan.go.kr/tour/index.iksan?menuCd=DOM\\_000005905001004000](https://www.iksan.go.kr/tour/index.iksan?menuCd=DOM_000005905001004000)
17. "익산 제석사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ulPageNo=1&region=1&searchCondition=%EC%A0%9C%EC%84%9D%EC%82%AC%EC%A7%80&searchCondition2=&ccbaKdcd=13&ccbaAsno=04050000&ccbaCtcd=35&ccbaCpno=1333504050000&ccbaCndt=&ccbaLcto=&stCbaAsdt=&endCbaAsdt=&header=view&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ViewList.do&pageNo=1\\_1\\_1\\_0&p=multiSch&sortType=&sortOrd=&sngl=Y&s\\_kdcdArr=00&s\\_ctcdArr=00&ccbaPcd1Arr=99&ccbaGcodeArr=00](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ulPageNo=1&region=1&searchCondition=%EC%A0%9C%EC%84%9D%EC%82%AC%EC%A7%80&searchCondition2=&ccbaKdcd=13&ccbaAsno=04050000&ccbaCtcd=35&ccbaCpno=1333504050000&ccbaCndt=&ccbaLcto=&stCbaAsdt=&endCbaAsdt=&header=view&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ViewList.do&pageNo=1_1_1_0&p=multiSch&sortType=&sortOrd=&sngl=Y&s_kdcdArr=00&s_ctcdArr=00&ccbaPcd1Arr=99&ccbaGcodeArr=00)
18. "악귀상두부", <국립익산박물관>, [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3&mng\\_no=244&GotoPage=2](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3&mng_no=244&GotoPage=2)
19. "천부상두부", <국립익산박물관>.



[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3&mng\\_no=243&GotoPage=2](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3&mng_no=243&GotoPage=2)

20. “금제사리봉영기”, <국립익산박물관>,  
[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4&mng\\_no=215&GotoPage=1](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4&mng_no=215&GotoPage=1)

21. 그림, <국립익산박물관>, [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4&mng\\_no=215&GotoPage=1](https://iksan.museum.go.kr/kor/html/sub02/0201.html?mode=V&d_mng_no=144&mng_no=215&GotoPage=1)

22. 강민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치욕의 역사를 끝내다”, <한겨레>, 2018년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51680.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51680.html)

23. 그림1,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jsessionid=ewz1rwfR16F60WyYB1snpzknm16YdPksYX3lcSZHzESckSpebocWwqEa23naA3Ke.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VdkVgwKey=11,00110000,35](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jsessionid=ewz1rwfR16F60WyYB1snpzknm16YdPksYX3lcSZHzESckSpebocWwqEa23naA3Ke.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VdkVgwKey=11,00110000,35)

24. 그림2,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jsessionid=ewz1rwfR16F60WyYB1snpzknm16YdPksYX3lcSZHzESckSpebocWwqEa23naA3Ke.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VdkVgwKey=11,00110000,35](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jsessionid=ewz1rwfR16F60WyYB1snpzknm16YdPksYX3lcSZHzESckSpebocWwqEa23naA3Ke.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VdkVgwKey=11,00110000,35)

25. "창립과 발전", 원불교역사박물관, <http://wonmuseum.net/home/node/42>



## ENDING CREDIT

### 지도교수님

박구병 교수님

김종식 교수님

이상국 교수님

한상준 교수님

한상우 교수님

### 편집자

사학 22 이예원

사학 22 김혜정

사학 22 오은강

사학 22 임준

### 제작·기획자

역사기행반 반장 정유진

역사기행반 부회장 노연희

역사기행반 총무 류수연

사학과 학생회 다봄 학술국장 김주영

사학과 학생회 다봄 학술차장 이소율

AND

추계학술고적답사에 참여한 모든 사학과 학우 여러분  
답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사학과 학생회  
사학과에 다시 찾아온 봄 ‘다봄’  
학생회장 18 김성빈  
부학생회장 21 이지우  
2022. 10

